

<2021년 1월 17일 주일말씀>

하나님의 때와 기간

본 문 전도서 3:1~8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마가복음 13:33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말씀 시작>

1.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를 생각하면 다 생각나게 연결되어 있다.
2. 하나님의 역사도 ‘구약-신약-성약’이 연결되어 있고, ‘따르는 자들’도 선조와 연결되어 있다.
3. 지난주에는 이상세계 말씀과 함께 하나님 영광 돌리는 주간이었다.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을 연결한다면, ‘이상세계를 이루어면 하나님의 때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4. (전 3:1) 만사에 때가 있고 기간이 있다.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다, 이는 ‘사사건건’마다 때가 있고 기간이 있다는 말이다.
5. <기한>과 <기간>은 다른 말이다. <기한>은 ‘목적의 때, 목적지, 한계가 찬다’함이다. <기간>은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의 구간’을 말한다.
6. ‘겨울의 때’가 있고, ‘그 기간’이 있다. 사람도 ‘태어나는 때’가 있고, ‘태어나서 사는 기간’이 있다.
7. <계절>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때와 기간’이 있듯이 <사람>도 ‘때와 그 기간’이 있다.
8. 저마다 지난날을 살아오면서 겪은 사연들을 보면 ‘고생의 기간’이 있었다. 그리고 다시 잘되는 때가 와서 ‘잘 되는 기간’

도 있다.

9. <솔로몬>은 하나님의 계시를 잠언으로 남겨서 후대의 많은 자들에게 전해주었다. <선생>의 잠언도 그러하다.

10. <잠언>은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다 다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삼밭 지주목에 똑같은 못을 박는다고 해도 ‘박는 위치’는 다 다르지 않냐. 같은 공장에서 나오는 못이라도 ‘쓰이는 곳’은 다 다르다. 그와 같이 그러하다.” 하셨다.

11. <잠언의 말씀>은 ‘자문’ 해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자문해주신 말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문해주신 말씀이다.

12. <잠언>은 자꾸 읽어봐야 답이 나온다. 한마디 말 속에 ‘1000가지’가 들어있다.

13. 본문의 말씀도 많은 말을 했지만, 이와 같이 ‘<때>가 확실히 있다’는 것을 강조한 말씀이다.

14. (전 3:10) 하나님이 노고를 주어서 애를 쓰게 만든 것을 보았다 했다. 이는 엄청난 도를 깨달은 것이다. 자기 주제 파악을 했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깨달은 것이다.

15. 성경은 보통으로 보면 보통으로 보이고, 깊이 보면 깊이 보인다. <잠언>을 기도하며 금식하며 행하면서 보면, ‘쓴 자의 차원’까지 깊이 깨닫게 된다.

16. 하나님의 말씀은 비위를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아주 깊은 비유다.
17. ‘네 집의 우물물이 딴 데로 흘러가지 못하게 하라’ 한 말씀이 있다. 그 근본은 ‘네 사랑이 딴 데로 흘러가지 못하게 하라. 오직 하나님께만 사랑하는 자에게만 흘러가게 하라’ 는 말씀이다.
18. 선생은 월남에 갔다 사온 ‘TV’ 를 팔아 교회를 지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잠언 하나하나>를 각각 ‘책’ 이 한 권씩 꽂혀있는 것과 같이 보여주셨다. 그리고 잠언의 말씀이 그대로 TV가 나오듯 ‘영계의 영상’ 으로 눈앞에 보였다. 그때부터 깊이 기도하며 간구하기 시작했다.
19. 때를 놓치면 대성통곡을 한다.
20. ‘자기 때’ 가 있듯이 역사적으로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
21. <하나님의 때>에도 ‘기간’ 이 있다. 때가 계속되지 않는다. ‘몸의 때’ 도 때를 밀어버리면 때의 기간이 끝난 것이다.
22. <때>는 ‘시간’ 과 같다. 극적으로 표현하면 ‘시계’ 와 같다.
23. <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기간이 있다. ‘1초’ 만 넘어가면 문이 닫히고 다른 때로 넘어가 버린다. 그러니 <자기 때>

에 목숨 걸고 해야 된다.

24. 선생은 <때>를 지킴으로 성공했다. 때에 대해 성공하지 못했으면 이러한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됐다.

25.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의 때는 정해져 있다. 그 기간이 지나가면 기회를 놓치고 못 하게 된다. 하나님도 누가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위해 다시 때를 돌릴 수 없다. 그때 못하면 못한 것으로 끝나버린다.

26. 때가 기회다. 기회는 때다.

27. 만사에 ‘때와 기간’이 있다. <때를 지키는 자>가 성공하고 자기 꿈을 이룬다.

28. <선생>은 ‘때를 지킨 사람’이다. 못 지킨 것은 15년 만에, 20년 만에 기어코 지키고 말았다.

29. ‘약속’을 지켜야 신용이 있다.

30. <때>가 있다.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안 믿은 것은 본인의 책임이다. 안 믿어도 주의 말씀이니 전해라.

31. <하나님의 구원역사>에도 ‘메시아를 보내시는 때’가 있고, ‘메시아가 활동하며 구원하는 기간’이 있다. 그때를 놓치면 자기는 그것으로 끝난다. 하나님도 “본인이 안 하니 어쩔 수

없다” 하신다.

32. <신약 예수님 당세>에 그 육체와 같이 살 수 있는 기간은 3년으로 끝났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기간’이 있고, ‘순간’이 있고, ‘시간’이 있다.
33. <순간의 기회>는 ‘약 3초, 2초, 1초’다. 어마어마한 것도 순간 지나간다.
34.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을 자꾸 들어야 ‘순간의 기회들’을 놓치지 않는다.
35. 선생은 전쟁터에서 내 앞에서 200명씩 죽는 것도 봤고, 섬리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죽는 것도 봤다. 그러나 안 죽는 자도 있었다.
36. <시대의 때>가 있다. 기회가 끝나면 끝난다. 하나님 영광과 이 상세계의 말씀을 이제는 안 하듯이 그러하다.
37. 시대의 때를 ‘42년 동안’ 외쳤는데 모른다. <주>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하며 구원시키러 왔다.
38. 때가 왔는데 게을러서 못했든, 준비되지 않아서 못했든, 귀히 여기지 않아서 못했든 하나님과 성령이 주신 때와 기회를 놓치면 그것으로 끝난다. 어쩔 수 없다.

39. 선생이 수백 번을 겪어봤지만 집을 사는 것도, 땅을 사는 것도, 교회를 사는 것도, 돌과 소나무를 사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관리하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돈을 벌고 쓰는 것도, 이 이야기를 순간 해주는 것도, 말씀을 쓰는 것도, 전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병 고치는 것도, 수술을 하는 것도, 각종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도, 키가 크는 것도, 대접하는 것도 모두 만사에 <때>가 있다. 그때 못하니까 안 됐다.
40. 항상 ‘한 기간’을 준다. 그 기간 내에 해야 한다.
41. 내용마다 기간은 다르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으면 오래 걸리는 것이다.
42. <메시아>가 다시 올 때 도적같이 온다 하신 말씀과 같이, <세상 모든 것>이 도적같이 온다. 그러니 여러 가지로 항상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43. 가령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직접 말씀이 없어도 받은 것으로 알고 믿고 행하는 것이다.
44. 일단 준비했으면 빨리할 수 있다.
45. 정류장에 ‘버스’가 오는 때에 왔다가 출발하듯 <때>와 <기간>이 있다. 늦게 깨달으면 이미 버스는 떠났다.

46. 행한 것을 보고 역사를 보면, <때>가 되면 ‘여건’ 이 안 좋아도 무조건 해야 한다. <때>만 보고 하는 것이다.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도울 사람’ 도 보내주고, ‘성령의 감동’ 도 주고, 자기도 ‘하고자 하는 마음’ 을 주며 강하게 움직이게 해주신다.
47. 떠나기도 전에 ‘온갖 걱정’ 을 다 한다. 하나님은 <행할 때> 자꾸 해주신다. 행한 뒤에 역사를 계속해주신다. 그러니 행하지도 않고 걱정만 하면 안 된다. 떠나서 <할 때> 해결된다.
48. 하나님은 한 것을 보시고 <결말 클라이맥스 때>에 막 주신다. 그러면 본인도 그때 깨닫고 한다. 그러나 시작할 때부터 확실히 깨닫고 하면 ‘5배, 10배’ 할 수 있다.
49. 얼마 전, 겨울인데 날씨가 따뜻하고 눈이 안 왔다. 이는 선생이 ‘하나님께 나무 심게 날씨 좀 따뜻하게 해달라’ 고 기도한 것이 있어서다. 빨리하고 싶은 느낌이 들기에 빨리해서 거의 큰일이 끝났는데 밤사이에 ‘폭설’ 이 내렸다.
50. <때를 지키는 자>는 그 ‘기쁨’ 이 크다. 할 일을 꼭 ‘자기 때’ 에 부지런히 해야 한다.
51. 번뜩번뜩 움직여야 한다. 선생은 뛰는데 자기는 걸으면 같이 할 수가 없다.
52. <때>가 왔으면 딴 데에 시간을 쓰지 말고 거기에 ‘집중’ 하

라. 먹고 자고 입는 것도, 자기중심도 하지 말고 ‘오직 때를 주신 하나님’을 쳐다보며 물어보며 빨리 집중하라.

53. 사람의 심리를 보면, 만나고 싶었던 자가 ‘도적’ 같이 나타나니 만나도 할 일을 잊어버리고 후회한다. 다음에 만나서 하려고 해도 쉽게 만나지지 않는다. <자기를 만나주는 때>가 그렇게 귀한 기회다.

54. <때>는 저마다 ‘준비된 대로, 성장한 대로’ 온다. 성장해야 기다리던 때가 온다. 성장해야 ‘결혼의 때’도 오는 것이다. 그러니 영도 육도 신앙도 부지런히 기르고, 세상 것도 부지런히 길러서 세상의 때를 맞아라.

55. 구약은 4천 년, 신약은 2천 년, 성약은 천년의 때다. 6이 아닌 ‘7’이 완전수다. 고로 반드시 천년 역사가 있다.

56. 4천 년 구약역사 끝나고 때가 되서 <메시아 예수님>을 보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육적’으로 생각해서 메시아를 맞지 못했다. 이는 ‘자기 주관, 자기 지식, 자기 수준, 자기 겪은 풍토’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하나님과 성령님의 생각’으로 했으면 100% 맞았었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57. 하나님은 ‘1초’도 어기지 않고 역사를 끌고 나간다고 하셨다.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만 데리고 역사를 펴나간 것이다.

58. <시계>같이 때를 지켜라. 시계는 어디에 두든지 시간을 지켜

잘 간다. 그와 같이 어디에 있든 흔들림 없이 그대로 하라는 것이다.

59. 선생은 중국에 있을 때 10개월 동안 천지창조를 작사 작곡했고, 하나님의 잠언 7권을 외워서 받아왔다. 시는 지금 3,500편이 넘었다.

60. <기회>는 항상 ‘시계’ 같이 간다. 핍박을 받아도, 어려움을 받아도 시계같이 살아야 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삶은 살아야 하는 것이다.

61. 구약의 ‘요셉’ 이후 2천 년 만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만에 <예수님>이 왔다. 그리고 신약의 ‘루터’ 이후 400년 만에 정확한 날짜에 <선생>이 와서 말씀을 외치고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역사는 정확하게 간다.

62. 때를 한 번 놓치면 ‘20년, 70년’ 만에 오기도 한다. 선생은 기도한 것 중에 ‘60년’ 만에 이루어진 것도 있다.

63. <때를 놓친 자>는 ‘때를 지킨 자’와 같이 갈 수 없다. <때를 놓치지 않은 자>가 같이 뛰는 것이다.

64. <때를 지킨 자>는 벌써 얻었기 때문에 안다. 못 얻었으면 못 지킨 것이다.

65. 하나님, 성령님, 성자도 지난날 수많은 <때>를 잡고 행해 오셨

기 때문에 ‘얻을 것’ 을 얻었고, ‘하나님의 역사’ 를 펴온 것이다.

66. <때>를 잡았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다른 때>를 잡을 수 있다. 고로 한 번 때 놓치면 계속 놓친다. 그러니 계속 때를 지키는 자와 같이 해야 한다.

67. 우리도 수많은 <때>를 지키고 관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도 ‘생명’ 도 얻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불어나게 됐다.

68. <때>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다.

69. 선생도 ‘대둔산’ 에서 눈보라를 참고 이기며 그때를 잡으려 몸부림을 쳤다.

70. 항상 때를 준비했다가 맞아야 된다.

71. 올해에는 <때, 기회>가 왔다. ‘이상세계로 살 수 있는 기회’ 다. 이 말을 잊으면 매일 오는 때를 못 잡는다.

72. 올해에는 ‘매일 마음과 행실을 새롭게 함’ 으로 승리의 역사를 펴는 해다. ‘극적으로 이상세계를 이루는 해’ 다.

73. 악착같이 하고자 해야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신다.

74. ‘주시는 때’에 받아야 된다.

75. 지난 1년 동안 <행한 것들>을 하나하나 기도해보니, ‘놓친 기회’도 있었고 빨리 해서 ‘잡은 기회’도 있었다. ‘생명’도 ‘사람 관리’도 성령께 간구하고 애간장 타며 애기했기 때문에 얻었다.

76. 한 회원이 편지를 보내오기를, 들어가고자 하는 대학교에 1명을 뽑는데 이미 합격자가 있어서 그 사람이 안 해야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를 놓고 ‘새가 날아갔다가 다시 잡을 때까지 그렇게 울어대듯이’ 3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결국 영광주간이 끝나는 새벽에 합격 전화가 왔다고 했다. 이같이 열심히 해야 기회를 잡는다.

77. 머리 아픈 여건과 문제와 사건들도 있지만, 그래도 ‘그때’가 기회다. 낙심하지 말고 해야 한다.

78. 기회가 왔다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없는 돈을 만들어서 투자해야 하고, 모든 서류를 만들어야 하고, 사람도 필요하다. 이같이 기회가 와도 ‘극적으로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것이다.

79. 여건과 환경이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며, 불만하지 않고, 기뻐하며 고마워하며 감사하며, 몸이 부서지도록 행해라. 한 번 가면 ‘영원한 주인’이 된다.

80. 기회가 오면 그 때에 속한 ‘문제들’이 온다. 이때 어떻게 할

까 전심으로 생각하면 단상을 통해 성령의 말씀이 나온다.

81. <명동교회>는 15분, 20분만 늦었어도 못 샀다. 당시에 선생은 옥에 있을 때라 바로 말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 계속 기도만 했다. 결국 그 영파가 전달되어 정확히 받고 가서 실천했다. <각 교회들> 전부 그러했다.

82. 교회를 살 때마다 <때>는 왔는데, 너무 ‘불리한 조건들’도 많았다. 그러나 선생은 “하나님의 어명이니 밀어붙여라!” 했다.

83. 축구는 ‘공격의 맛’ 이듯이 기회가 왔을 때 밀어붙여야 된다. 미리 계획하고 그대로 하는 것이다.

84. 할 일을 서둘러 하고, ‘소돔 땅을 빠져나가는 롯’ 과 같이 해야 한다. 한 번 하면 절단나게, 옆 사람이 믿어주게 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다.

85. 자기가 기다리는 때가 왔다고 해도 ‘혼자’ 서는 이를 실천하기 어렵다. 그러니 ‘옆 사람’ 과 같이해야 한다.

86. 올해는 ‘모두 새롭게 하며 뛰고 달리는 해’ 다.

87. 기다리는 때는 <모두>에게 온다. 준비해야 한다.

88. <때>는 잡아야 한다. 저마다 <자기 때>가 있다. 때 지나면 없

다.